콘텐츠산업 수출액 88억 달러 돌파

전년 대비 6.7%↑113조 2165억원… 연평균 15.7%의 높은 성장률 보여

2017년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113조 2165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콘텐츠산업수출액은 88억 1444만 달러, 무역수지 76억 1000만 달러 흑자전환 했다.

한류 인기 지속으로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5년간(2013년~2017년) 연평균 15.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018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결과(2017년 기준)를 4일 발표했다.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매출액 113조 2165억 원, 전년 대비 6.7% 증가

콘텐츠 매출액은 출판, 애니메이션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게임 부문에서 매출 규모가 크고 높은 증가율(20.6%)을 보여 국내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는 ▲ 출판산업이 20조 7553억 원으로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 방송(18조 436억 원) ▲ 광고(16조 4,133억 원) ▲ 지식정보(15조 414억 원), 게임(13조 1,423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액 88억 1444만 달러, 무역수지 76억 1000만 달러 흑자

2017년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46.7% 증가한 88억 1444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 산업 수출액 전년 대비 증가율(15.8%)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수출액은 방송, 광고, 영화 등에서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게임(80.7%), 출판(17.9%), 음악(15.8%) 부문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2017년도 수입액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12억 436만 달러, 무역수지는 76억 1009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액 규모는 ▲ 게임산업이 59억 2300만 달러(해외매출액 포함) ▲ 캐릭터(6억 6385만 달러) ▲ 지식정보(6억 1606만 달러) ▲ 음악(5억 1,258만 달러) 등의 순이다.

◇종사자 수 64만 4847명, 전년 대비 1만 3000여 명 증가

2017년도 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약 2.1% 증가한 64만 4,847명으로 전년 대비 약 1만3300명이 증가해, 최근 5년간 약 2만 5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는 출판, 음악 산업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게임 부문에서 높은 증가율(10.7%)을 보였다.

이번 통계조사 결과는 문체부가 9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2개 기관(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영화, 방송 산업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집계한 것이다. /뉴시스

순창군 팔덕면, 난타 동아리 '강천폭포소리' 창단식 가져

순창 팔덕면(면장 김철욱)이 최근 면민들로 구성된 난타 동아리 창단식을 가졌다.

이날 창단식에는 관내 기관장, 사회단체장, 회원 35명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축사, 다과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동아리 창단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위원장 김진규) 일환으로 추진된 난타 교육이 지역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며 동아리 창단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특히 지난 5월에 있었던 회원모집에서 당초 계획된 인원을 초과한 35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큰 인기를 모았다.

동호회 이름은 '강천폭포소리'로 지어 순창 팔덕면의 관광명소인 강천산군립공원을 연상케하는 동시에 난타소리가 마치 폭포소리처럼 웅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날 모인 회원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저녁 시간에 전문강사를 초빙해 난타 실력을 갈고 닦아 다양한 행사에 선보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김용섭 회장은 "우리 동아리는 단순 동호회 활동에 그치지 않고 재능 기부를 통한 각종 공연 봉사에도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순창을 대표하는 난타 동호회로 거듭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뜨거운 열정 함께 할 장수청소년들을 기다립니다"

버스킹 IN 장수 청소년 버스커 모집

장수군은 이달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장수누리파크 버스킹존에서 열리는 '버스킹 IN 장수'에 함께 할 청소년 버스커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노래와 댄스, 랩, 힙합, 아카펠라, 밴드, 기타 퍼포먼스 등으로 장수군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과 동아리팀 등 모두 신청 가능하다.

버스커로 선발될 경우 2회 이내 공연기회와 소정의 공연비가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장수군홈페이지(http://www.jangsu.go.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jnuri2019@daum.net)로 접수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장수군 농업정책과(063-350-2371)로 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북교육문화회관, 여름 독서교실 운영… 다양한 독후 활동 지원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10일 동안 오전 9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 회관 교육실에서 진행 할 예정이다.

이번 여름 독서교실은 '책 속에서 내 꿈을 잡(job)아라!'라는 주제로 운영되며, 진로주제와 관련된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지원한다. 책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멘토들을 만나 나의 미래에 대해 설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여름독서교실은 이창현 작가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 하다 & 유튜버 도전하기!', 최윤정 작가님의 '방송작가 진로' 특강이 진행된다.

또한, 전주기상지청, 전주덕진소방서를 방문하여 각 기관이 하는 일, 시설견학, 기상청·소방관련 진로이야기를 듣고 예보실 견학, 기상예보체험, 화재진압, 심폐소생술 등을 직접 경험하여 기상 예보관·소방관이 되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장은성 기자

박영삼 작가 - 경기전 정전.

천년고도 전주의 멋과 향기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박영삼 작가 '전주 태조로 완상전'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는 오는 10~15일일 '박영삼 개인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6번째 개인전이며, 이외에도 다수의 단체전과 다양한 기획·초대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7 전라북도 사진대전 우수상 수상 등 전국사진공모에서 50여회 입상했다. 현재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청록사우회 회원, 호남제일신문 명예사진기자로 활동 중이다.

조선 이태조의 이름에서 연유된 태조로는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 도로이다. 이 태조로를 중심으로 경기전, 풍남문, 객사, 향교, 오목대, 전통적인 한옥 등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적이 많이 보존되어 있다.

최근 전주시는 한국적인 멋과 맛이 잘 계승되어 발전되고, 문화유적이 잘 보존된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관광도시로 다시 발돋움하고 있는 활기찬 도시이다. 작가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태조로를 사진에 담아 이번 전시에 선보인다.

완상이란 어떤 대상을 즐겁게 구경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작가는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태조로를 중심으로 잘 보존된 문화유적들과 한옥마을의 거리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구경하며 즐기는 모습들을 수년간 사진으로 촬영해왔다.

사진예술은 대중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카메라의 성능, 기술, 촬영기법과 이를 활용하여 촬영하는 작가의 개인 능력과 사물을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또한 접근성이 높아 사진예술의 영역은 더욱 확대 발전할 것이며, 그것은 사진표현에 자유롭게 그리고 보관하기에 간편하게, 어떤 전달수단이나 기록 방법보다도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대중들은 지금보다도 사진이라는 매체를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박영삼은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에 따라 한옥마을이 변화하는 모습을 2년 동안 카메라에 담아왔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 내내 계속해서 사진을 촬영해왔다.

이 사진들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결과로 나온 사진들은 현대예술의 자유로운 표현법을 써서 제작되었다. 이번 전시는 사진의 표현에 충실하면서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의 분위기와 천년고도 전주의 멋과 맛, 그리고 역사의 향기가 교차하고 중첩되어 나타나는 심미적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시도한 사진전이다.

/김진성기자

박영삼 작가 - 경기전 돌담.